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시범사업 실시

- ✓ 3개 대학(부산외대, 인천대, 한국외대) 및 3개 산단(반월시화, 구미, 광주첨단)의 청년을 대상으로 5월 18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실시
  - ✓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내 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 【관련 국정과제】 (82-3) 청년 등 전국민 경제·금융교육 강화, (89-3)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덕원, 이하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5월 18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주요내용) 희망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①재무진단과 1:1 맞춤형 ②재무상담 제공

- ① (재무진단)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재무정보(소득, 지출, 부채 등)를 바탕으로 재무상태(부채 부담, 저축·투자 성향 등)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
- ② (재무상담) 전문 재무 상담사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재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형성, 소득·지출·신용·부채 관리 등 개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

▶ (운영현황) 재무진단\*은 현재 청년 누구나 가능(‘26.1월~)하며, 재무상담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 지점을 방문하는 방식 등을 통해 ‘26년 하반기 운영 예정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에서 가능, 접속 QR코드 ⇨



금융위는 올해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부위원장 주재)’를 출범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금융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 \* ①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확대
- ② 청년 친화적 상담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찾아가는 재무상담’ 등 방식 다각화
- ③ 관련 사업·정책 간 유기적 연계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통합 운영체계 구축

이번 시범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표준화된 청년 재무상담의 절차와 방법론을 현장에 적용해 보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운영 절차, 상담인력(금융기관 직원, 전문 재무상담사)에 대한 교육방안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전문 상담인력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재무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3개 대학 및 3개 산업단지와 연계된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과 산업단지 내에 상담소를 운영하여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해당 시간과 장소에 상담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부산은행), 인천대학교(신한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우리은행)  
(산업단지) 반월시화(기업은행), 구미(기업은행), 광주첨단(기업은행)

시범사업 대상 청년의 규모는 대학 및 산업단지의 내부 채널 등을 통해 사전에 모집된 인원과 현장신청 인원을 포함하여, 120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청년은 기관별로 정해진 일자에 상담소에서 대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찾아가는 재무상담'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인 5월 18일(월)부터 5월 29일(금)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에도 현장 신청을 통해 대면 또는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시범사업 일정 >

구분		연계은행	대면 상담소 운영일자	찾아가는 재무상담 운영일자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은행	5.18.(월)	5.18.(월) ~ 5.29.(금)
	인천대학교	신한은행	5.20.(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우리은행	5.22.(금)	
국가 산업단지	반월시화	기업은행	5.27.(수)	
	구미		5.27.(수)	
	광주첨단		5.28.(목)	

금융위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의견 설문을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운영 절차를 현장에 직접 적용해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02-2100-1689)
담당 부서 <공동>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사업부	책임자	부 장	김미혜	(02-2128-8216)
		담당자	과 장	최도연	(02-2128-8219)